

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 부정 사용”

〈3년간〉

대통령실 “1만2000여곳 감사 결과
1조1000억 규모 사업서 비리 확인”
감사 범위 확대면 부정수급 늘듯

尹, 국민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주문

줄줄 샌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2020~2022년 국고보조금 총액(지방비 제외)
9조9000억 원 중 6조8000억 원
(6158개 사업, 1만2133개 단체) 감사 결과

314억 원 (총 1865건)

부정 사용
적발

#1. 울산의 A 지역아동센터장은 2020~2022년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 계좌에 입금한 뒤 토산품 기술을 활용해 이체 증명서를 위조했다. 그는 보조금을 강사로나 소모품비로 업체에 정식 지불한 것처럼 위조해 2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 통일운동 단체인 B문화연합은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626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진단과 처방’ 등 관련이 없는 강의를 편성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 등에 강사비 211만 원을 지급했다.

국무조정실 총괄로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133곳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가 확인됐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6조8000억 원에 대한 감사 결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엔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용 내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브리핑을 열고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이) 위약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며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라”고 주문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부정이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보조금 구조 조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식 기자 jks@donga.com

▶A3면에 계속

한일 국방, 4년반 ‘초계기 갈등’ 봉합... “재발 방지책 마련”

싱가포르 亞안보회의서 만나 합의

한미일 “北미사일 궤적 등 정보정보
올해 안에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한일이 2018년 12월부터 4년 반 남짓 끌어온 이른바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아사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뒤 한일 간 ‘초계기 갈등’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용 레이

더를 조준했다는 일본 주장과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한국 입장을 그대로 둔 채 한일 당국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4년 반 만에 봉합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국방장관이 회담한 것은 약 3년 6개월 만이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양측 입장 차가 오랜 기간 너무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양측이 공감했다”며 “양국 정상이 신뢰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만큼 초계기 갈등 역시 양측 입장을 있는 그대로 두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은 전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해 정상 가동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3국 간 실시간 경보 정보가 오가는 ‘허브’로 활용한다는 것이 3국의 구상이다. 실시간 공유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 시 발사 지점,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 등 3가지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방위상은 3일 3자 회담을 연 뒤 공동 보도문을 통해 “북한 발사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손호주 기자 hjson@donga.com

▶A4·5면에 관련기사



중요장처럼 구겨진 열차 2일(현지 시간) 인도 동부 오디샤주 발라소르에서 달리던 여객열차가 주차된 화물열차에 부딪혀 탈선한 후 몇 분 뒤 반대 방향에서 달리던 여객열차와 또 충돌했다. 3일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겹겹이 쌓인 객차 잔해를 뒤지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4일 현재 최소 275명이 숨지고 1175명이 다쳤다. 2차 충돌한 여객열차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멀리서 무언가를 굶는 듯 끔찍한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타고 있던 객차가 90도로 땅에 기울어져 멈췄다”며 “열차 밖으로 나오니 사방에 찢자국과 시신들이 보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발라소르=AP 뉴시스

인도, 노후 철도에 신호 오류... 열차 충돌로 최소 275명 사망

열차 3대 연쇄충돌, 객차 17량 탈선
1170여명 부상... 사망자 늘어날 듯

인도 동부에서 열차 3대가 연쇄 충돌해 최소 275명이 숨지고 1100여 명이 다쳤다. 인도에서는 노후한 철도 인프라와 안전 관리 부실 탓에 열차 사고가 잦은 편이지만 이번 사고는 21세기 들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열차 참사라는 말이 나온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7시경

(현지 시간) 인도 동북부 살리마르에서 남부 첸나이로 향해 시속 130km로 달리던 여객열차가 같은 철도에 주차된 화물열차에 부딪히며 1차 충돌이 일어났다. 충돌의 여파로 여객열차에서 객차 10~12량이 탈선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또 다른 여객열차와 2차로 충돌했다. 두 차례 충돌로 객차 총 17량이 탈선했다.

사고가 발생한 오디샤주는 이 사고로 4일 기준 사망자 수는 275명, 부상자 수는 11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아직 수백 명이 중양처럼 구겨진 객차 안에 갇혀 있는 데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철도 신호 오류로 알려졌다. 해당 철도 노선을 운영하는 인도 남동부철도는 “1차 충돌한 여객열차가 잘못 나간 신호를 보고 화물열차가 주차된 선로로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고 구간에 열차 충돌 방지 시스템 ‘카바치(Kavach·방패)’가 설치되지 않는 등 노후한 철도 인프라를 지적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A18면에 계속

코로나 3년 ‘운동 멀리’... 비만인구 3.3%p 증가

지금 움직입니다

〈上〉 나쁜 건강습관과도 헤어질때

“팬데믹이 끝났지만 진짜 ‘건강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1일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며 팬데믹은 사실상 종료됐다. 하지만 건강하게 먹고 움직이는 습관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탓에 만성질환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강재현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건강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개인과 사회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비만 인구의 비율은 37.1%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3.8%보다 3.3%p포인트나 증가했다. 만성질환 유병률뿐만이 아니다. 식습관과 운동 습관, 흡연·음주 행동 등 모든 건강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원영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저출생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움직여라’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건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A8면에 계속

3년 확정수익 보장으로 매월 50~200만원 지급

1구좌 : 3천만원
(매월 50만원 지급)

금융권 3년 만기
지급보증서 발급

투자원금은 안전하게
100%전액 반환됩니다.

35년 전통 지리산 앞새산삼만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 혜택 ① 35년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안전한 수익 발생
- 혜택 ② 다양한 거래처에 고정 납품중 / 유통망 확보
- 혜택 ③ 매달 지급되는 수익금으로 안정적인 생활비 보장
- 혜택 ④ 3년간 단 하루도 늦지않게 100% 수익금 지급
- 혜택 ⑤ 매달 무료로 제공하는 앞새산삼으로 가족건강 증진

최종
분양마감
임박

얼마 안남은 전여구좌! 서둘러 주세요!



고천규 앞새산삼

검색

분양 02)2268-3335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4-721321 (농협회사 법인 지리산 앞새산)

생산부터 유통까지 본사가 직접 운영하여 배당금 매월 지급